

안락사 절차 위반에 사체를 사료로 쓰기도...

보성군 센터 마취제 없이 안락사
정읍 센터는 몰래 개농장에 넘겨
“지자체가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전남 보성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견 20여 마리에게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안락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전국 시보호소 전수조사 중 보성군 유기견 보호소에서 불법 안락사 현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단체는 아연실색했다. 트럭에는 안락사된 사체들이 포대자루에 실려 있었고, 사체들 사이에는 아직 살아있는 개도 있었다.

이날 이 센터에서는 유기견 90마리가 안락사 될 뻔했으나, 동물단체의 항의로 21마리만 안락사했다. 안락사는 담당 공무원 2명의 입회하에 진행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유기동물 공고 기간이 끝난 96마리가 대상이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날 안락사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상태로 진행됐다.

전북 정읍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는 유기견을 일정기간 보호하다 견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한 것처럼 꾸며 정읍 지역 한 육견농장에 넘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센터는 정읍시로부터 위탁받은 현지의 동물병원이 운영해왔다. 유기견 판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제공 | 펫뉴스

매 사실은 동물보호단체들이 현장을 점검하다 밝혀냈다. 보호시설은 일반 개농장처럼 열악했고, 유기견 또한 대부분 각종 피부병과 심장사상충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읍시는 문제의 보호시설 대표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현장에서 구조한 유기견 10여 마리는 임시 보호소에 맡겼다.

동물보호센터에 머물다 안락사된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나 비료로 쓰인 경우도 있었다. 사료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상 불법이지만 제주에서 지난해

에만 13톤이 넘는 유기견 사체가 재활용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급히 처리방식을 바꿨다. 지난해 제주에서만 동물 사료나 비료 원료로 재활용된 유기동물 사체는 약 3800여 구로 무게로는 13톤이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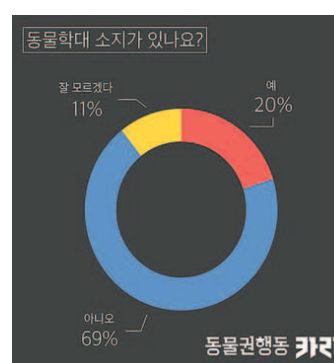
물론 보호센터에서 비극적인 일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도우미견·반려견 훈련 및 입양 전문기관이다. 2013년 3월 화성시 마도면에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입양된 유기견은 2013년 12마리를 시작으로 2017년 233마리, 2018년 292마리, 2019년 335마리 등 꾸준히 늘고 있다.

한 반려동물 전문가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를 모범사례로 꼽고 “지자체가 직영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유튜브 동물 영상 20% 학대 의심

투명벽 등으로 웃음 유발... “영상 감시 필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서 반려동물을 이용한 동영상의 비중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습성과 반대되는 행동을 시킴으로써 반려동물을 괴롭히는 영상이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가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동물을 키워드로 업로드된 영상 413개(계정 79개)를 분석한 결과 5건 중 1건은 동물 학대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82종 이상의 동물이 등장했고, 개(47%)와 고양이(24%) 영상이 가장 많았다.

413개 영상 가운데 83개(20%)는 동물 학대 영상으로 나타났다. 동물 학대 유형으로 '비정상적인 돌봄'이 45%(63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려동물에게 장애물이나 투명 벽 피하기 챌린지 등을 강요해 웃음을 유발하는 영상이 많았다. 촬영을 목적으로 동물의 습성과는 반대의 공간에 방치해 괴롭히기도 했다.

신체적·물리적 폭력 유형도 20%(28개)로 나타났으며, 위협을 하거나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언어적·정신적 폭력은 16%(23개)로 나타났다. 산책지 등 동물을 산 채로 먹거나 사체를 촬영하는 등 혐오스럽거나 자극적인 행위의 영상은 15%(21개)였고, 동물을 성희롱 하는 영상도 6건(4%)이었다. 영상을 재밌게 만들 목적으로 동물을 우스꽝스럽고 희화화한 영상은 31%(80개)로 나타났다. 동물이 불쾌한 반응을 보여도 영상 촬영을 위해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카라 관계자는 “생명존중 가치를 훼손하는 영상들을 감시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승 객원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올해 7월에만 반려동물 1만3700마리 유기

지난 3년 7월 평균보다 1000마리 ↑
전문가, 동물등록제·동물세 목소리

올해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반려동물이 7만8000마리를 훌쩍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3700마리가 유기 또는 유실됐다. 이는 지난 3년간(2017~2019) 7월 평균 발생 유기(1만2732마리)보다 1000마리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여름 때마다 동물 유실·유기 건수가 늘어나지만 올해는 장마가 길어지며 유기 건

수가 줄어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려동물 유기가 폭발적으로 늘어 씹쓸한 뒤통수를 맞았다.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면 처벌이 가볍지 않다. 동물 유기에 관한 처벌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도 한층 엄격해진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 현재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지만, 내년부터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휴가철 유기동물이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 동물등록제 의무화와 반려동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 | 펫뉴스

전문가들은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세를 매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동물을 등록하면 유기하더라도 주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세를 부과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도 한층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반려동물세가 부담이 되면 키우지 않을 것이고, 부담할 정도라면 반려동물을 책임지고 키울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으로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물론 동물등록제 의무화와 반려동물세 부과만으로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인식개선이냐. 반려동물 동반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는 반려인을 만드는 것이 동물 유기를 막는 궁극적 방안이다.

박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자본공유앱’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1조원 기부 TV' (1, 2부)
동영상 시청 후 문의 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냐?**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아!
씩을 때로 썩어 썩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아
이생망, 헬조선, 홀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할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글로벌 최고품,
최저가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가 되는 우분투
기본소득 신 르네상스 프로젝트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레이기부 품앗이게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극 !!!

● 총재 황호권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김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백인조 010-6462-6712 / 역삼 캠퍼 010-5647-5428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주자 010-9339-8649 / 김광수 010-3207-8291 / 강영배 010-8290-8801 / 강영석 010-3274-5289
강신오 010-2209-1142 / 이승지 010-9725-2789 / 최득남 010-5661-4167 ● 부산 김창수 010-9852-6452 / 박삼석 010-7309-1000 / 민병수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창희 010-5644-2788
윤영기 010-4424-7161 / 추명환 010-4741-7008 / 조원호 010-7374-4111 / 서재훈 010-8770-2935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송희진 010-7712-2202 / 김동환 010-3742-5998 / 전달만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이주환 010-4489-9789 / 오태환 010-5617-8123 / 김신호 010-6543-3126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택수 010-4830-1810 ● 창원 최정희 010-8231-0776
장인태 010-7586-7985 / 이철배 010-3572-4616 ● 전남 김해덕 010-6258-3510 / 오명숙 010-8804-3424 ● 인천 박윤표 010-3227-0993 / 주안 종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김호중 010-8488-2999 ● 김포 장재호 010-6416-1888 ● 이현 최찬서 010-4707-2659 / 현선희 010-5177-9479 ● 여주 장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황인드래머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황베드로 010-7610-9936 ● 평강 교명철 010-5463-6952 ● 중국 송동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와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 (주)
Hlubuntu 1644-6733